강단으로부터의 사색

진 성 규
문과대 역사학과 교수

명재 윤증(1629~1714) 고택 엿보기

지난 2월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앙사학회 정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논산으로 출발하였다. 세미나 장소는 우리나라 고가의 하나인 파평윤씨 윤증고택이다.

경부선을 타고 가는데 교통체증이 심해 논산까지 가느라고 고역을 치루었지만, 1차선으로 달리는 차는 예외였다. 주말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로 승용차는 1차선으로 통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해질녘에 고택에 도착하여 종손 윤완식 선생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한국전통 고가가 그렇듯이 사랑채와 안채로 대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증고택의 특징은 사랑채와 안채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내외벽이라는 칸막이 벽을 설치한 점이다. 안채는 외부 남자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므로 외간 남자가 함부로 기웃거릴 수 없도록 한 장치이기는 하나 바닥까지 막지 않아 안채에서 외부 사람들의 신발을 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알아 대처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안채와 창고를 과학적으로 배치한 점이다. 안채가 있는 서쪽 방향에 창고를 지어 겨울의 추위와 여름 해질녘의 뜨거운 석양을 막도록 하면서도 안채 옆에 창고를 일직선으로 배치하지 않아 안방에서 채광을 하도록 한 과학성이 섬뜩하도록 놀랍다.

한편 안채에 있는 제사상을 보니 사대부집안의 제사상치고는 너무도 초라했다. 설명인 즉 제사상에 육류를 올리지 않고 광소에 먹던 과일류만 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때문이란다. 백의정승다운 면모가 웃짓을 여미게 한다.

고택을 구경하는 중 어둠이 이미 내려 자세한 관찰은 내일 하기로 하였다. 곧바로 저녁식사를 마친 후 8시 경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2명의 발표와 토론이 끝난 뒤 뒤풀이를 하다가 12시경 안채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잠을 청하다.

윤증 고택은 노성산(鷄城山) 아래 자리잡고 있으므로 전망을 보기위해 25일 7시경 노성산을 올랐다. 대학원생 3명이 뒤를 따랐다. 본래 노성산은 니산(尼山) 이라고도 한다. 니산이라는 명칭은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 니구산(尼丘山)에 기도해 공자를 낳았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여기까지 붙게 된 것이다. 유학의 센터라는 자부심이 가미된 탓일게다. 노성산은 348m 정도밖에 안되는 산이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인근의 주민들이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상에는 근래에 세운 6각정이 니성산정(尼城山亭) 현판을 달고 있다. 서북방향으로는 계룡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나직나직한 동산이 펼쳐진 논산의 모습이 다정스럽게 닥아온다. 6각정 바로 아래는 신흥종교의 하나인 금강대도(金剛大道) 노성본원이 버티고 있어 논산이 예사롭지 않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 식사 후 파평윤씨 문중 서당인 종학당(宗學堂)으로 달려갔다. 조선시대는 전국으로 사립학교격인 서원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문중서원이랄 수 있는 종학당은 이곳이 유일한 예가 아닌가 싶다. 근래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종학당의 모습을 일신시켜놓았다. 종학당은 윤증의 증부(仲父)인 윤순거(尹舜擧 : 1596-1688)가 기틀을 마련했지만 윤증이 학규를 만들어 기반을 마련한 후 대과 합격자가 40여명 배출되어 파평윤씨가 명문가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곳이다.

현재 종학당은 진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백록당(白鹿堂) 정수루(淨水樓) 보인당(輔仁堂) 등이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다. 드넓은 정원과, 탁 트인 시야, 시원한 호수가 발길을 붙잡고 있다. 게다가 지호지간에 노성산이 잡힐 듯 자리잡고 있다. 정말로 여름 한철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한 때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저 노성산까지 울려 퍼졌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온다. 종손 윤완식 선생에게 여름 방학에 한번 이용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자 흔쾌히 허락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글 읽는 소리(伊吾聲)라고 다산도 말하지 않았던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점잖인가 보다.

사 설

신속하더라도 신중해야 할 행정

지난 달 있었던 통합 학위 수여식에 대한 학교 측과 학생들의 입장이 아직도 큰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

우선 대학 본부 측은 한번 수여된 통합 학위에 대해서 어떤 번복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다른 통폐합이 있을 시에는 이번 상황을 선례로 삼아 같은 방식의 통폐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과는 달리 해당 학과 측의 입장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우선, 해당 학과 학생회의 입장은 통합 학위가 수여되기 전, 학교 측과 어떤 소통도 있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 있었던 통합학위 관련 회의에서는 통합학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에 따르는 1캠 학과들에 대한 지원 여부가 회의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다뤄졌다. 통합학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서면 약속화가 언급되기도 하는 등 본래 회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과 구조개혁 후의 사안들은 어느 한 쪽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해당 구성원들의 생각을 수렴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 본부 측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수여된 통합 학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의사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꼭 짚고 가야만 한다.

지난 2일 가진 개강 인터뷰(관련기사 본지 1면)에서 박범훈 총장은 이번 통합 학위 수여에 대해서 국립대의 통합을 참고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대답했다. 지방의 모 국립대학이 대학교간 통합이후 통합학위 졸업장이 발급된 것을 선례로 삼아 중앙대도 통합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통합학위 문제를 대학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판단한 대학 본부가 내린 '긴급'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통합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어떠한 사전 점보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해당 학과장조차도 졸업학위의 형식을 알지 못한 채 학위 수여식에 참여할 뻔 했다. 대학 본부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행정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조교제도 개선의 핵심은 연구지원

교수 1인당 1조교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학기부터 조교제도가 전면 수정 혹은 확대되어 실시된다. 먼저 조교자격 및 직무형태, 급여 등 기존 조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교 채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학위에 따라 각기 다른 보수를 지급받아야 했다. 똑같은 행정업무를 보면서도 교육조교 혹은 연구조교라는 직급명이 다르고 다른 보수를 받았다. 연구조교의 경우 교수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배정되지만 연구결과를 제출할 강제조항은 없었다.

조교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크게 교육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 3직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교육조교는 학부 및 대학, 대학원 행정실에 배정되는 조교로 학과단위에는 2인이 기본배정되고 학생정원수와 학문분야 평가시기에 따라 배정 인원에 차이가 있다. 연구조교 B는 연구소에 배정되는데 교육조교와 함께 석박사 재학생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연구조교 A는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 신입생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1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 이로써 교수 1인당 1조교제도가 현실화된다. 반면 행정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한다.

조교제도 개선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무의 성격에 따라 조교가 구분되고 동일업무 동일급여 체계로 운영된다. 급여 차이 때문에 교육조교로 차별을 을려두고 연구조교 업무를 보던 구태도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수 개인의 연구조교 배정만으로도 2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하기 때문에 교수 연구의 성과 제출 주기도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조교제도가 바뀌는 방식의 도입은 큰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중앙대로서는 장학금 수혜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되고, 교수 연구지원에 따른 결과물 창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도 내다볼 수 있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조교에 채용할 인력은 구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학원이 없거나 대학원생수가 현격하게 적은 학과의 경우 조교 선임 자체부터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제도적 보완이 계속되어야 한다.

원리로 배우는 漢字

〈정리정돈한자〉 저자 김홍전

한자를 만든 원리 육서로, 기억의 원리로 분류 정리하여 한눈에 들어오게 편집한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한자를 배워봅시다.

물수(삼수변)

물의 명칭, 물의 처소, 물과 관련된 사물, 물의 활동, 물과 관련 있는 활동, 물의 상태, 물의 성질과 관련 글자

가장 많이 쓰이는 부수자 순으로 연재 됩니다.
형성자(형성자는 앞부분이 뜻을, 뒷부분이 소리를 나타내는 합체자임)만 소개합니다.

湖	洋	洲	港	洞
호수호	큰바다양	물가주	항구항	고을동
滴	潮	油	漏	沿
물방울적	밀물조	기름유	샐루	따를연
渴	泳	漁	注	添
목마를갈	헤엄칠영	고기잡을어	물댈주	더할첨
浸	潤	漂	沒	滅
짐길침	젖을윤	표류할표	빠질몰	멸할멸
準	滿	深	漆	溫
평평할준	찰만	깊을심	옻칠	따뜻할온

중대신문 60주년 중대신문이 함께한 순간 12선

전이구속투쟁

1988년에 들어서 5.18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이순자의 구속' 요구가 대학가를 들끓게 했다. 이듬해 1989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정비리가 밝혀지면서, 대국민 사과성명이 발표되는 등 신군부세력의 쇠부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학생과 국민들은 5.18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의 처벌을 부르짖었다. 대학가에는 '광주학살 진상규명 학살원흉 처단하자', '광주학살 부정비리 수범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하자' 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

사진은 전경을 부여잡고 절규하는 학생.

1캠 주간식단표

		월 / 5	화 / 6	수 / 7	목 / 8	금 / 9	토 / 10
이슬기마루 (학관1층)	아침 08:00~11:00 1,500원	쇠고기미역국 어묵볶음 참나물무침 달걀후라이 김치 691kcal	근대된장국 꽁치조림 구이김 달걀후라이 깍두기 743kcal	북어국 두부양념조림 콩나물무침 달걀후라이 김치 720kcal	배추된장국 멸치볶음 돌마늘무침 달걀후라이 깍두기 671kcal	냉이된장찌개 오징어파전 미역줄기볶음 달걀후라이 김치 763kcal	김치콩나물국 장조림 콩나물무침 달걀후라이 깍두기 713kcal
	점심(한식) 11:00~2:30 1,800원	계란국 돈불고기 양배추쌈&쌀장 김치 756kcal	돈육순두부찌개 맛살달걀말이 무생채 김치 773kcal	유부국 찜닭 청경채무침 김치 701kcal	불고기비빔밥 맑은국 김치 685kcal	모듬쌈찌개 잡채 치커리오이생채 깍두기 795kcal	쇠고기볶음밥 마카로니샐러드 달걀국 김치 852kcal
	점심(양식) 11:00~2:30 2,300원	순살황돈까스 양상추샐러드 맑은장국 깍두기 802kcal	함박스테이크 떡볶이 양배추샐러드 브로콜리스프 깍두기 872kcal	오므라이스&돈까스 아채샐러드 크림스프 깍두기 883kcal	돈까스&새우까스 샐드위치 그린샐러드 달콘스프 깍두기 861kcal	볶음밥 &함박스테이크 떡과일샐러드 옥수수스프 깍두기 749kcal	특식 4,000원 삼계탕 889kcal
	저녁 15:30~19:30 1,800원	콩나물밥/요구르트 무다시마국 봄동겉절이 571kcal	김치제육덮밥 오렌지 미역국 단무지 677kcal	쇠고기국밥 어묵볶음 부추무생채 김치 591kcal	미역장국 돈육떡볶음 상추무침 김치 725kcal	닭갈비덮밥 쌩이버섯국 배추겉절이 768kcal	
이참마루 (학관 지하)	점심 11:00~13:30 2,500원	갈비탕 도라지오이생채 양배추샐러드 깍두기 1087.3kcal	버섯육개장 닭탕수/단무지무침 바카로니샐러드 봄동겉절이 884.32kcal	쌩이장국 돈육콩나물볶 두부조림 굴무생채/김구이 김치 794.22kcal	시금치된장국 꽁치김치지짐 감자채볶음/과일샐러드 김가루무침/김치 973.12kcal	건새우아우국 닭볶고기 파전/오이무침 김구이 깍두기817.21kcal	
	면류 11:00~13:10 1,800원	우동 단무지 김치	우동 단무지 김치	우동 단무지 김치	우동 단무지 김치	우동 단무지 김치	
	저녁 17:00~18:30 2,500원	두부된장찌개 오븐불고기 취나물볶음 달걀무침/햇양념김치 김치 805.96kcal	김치찌개 불고기 상추아채무침 파래자반 김치 1121.53kcal	소고기배추국 자반구이 달걀야채말이 도토리묵무침 깍두기985.32kcal	쑥된장국 오향닭조림 렌구이/봄동된장무침 요구르트 김치 827.35kcal	콩나물국 삼겹살김치두루치기 멸치고추볶음 감자조림/시금치나물 김치 1042.36kcal	
이햇살마루 (공대)	점심 11:30~13:30 3,000원	쌀밥 미역국 매운고기장조림 부추아채전 열무새호두조림 배추김치	수수밥 사골우거지영양탕 가자미조림 후랑크아채볶음 유채나물무침 배추김치	흑미밥 어묵국 오징어떡볶음 아채제육말이 마늘쫑볶음 배추김치	보리밥 냉이된장찌개 돈육김치두루치기/두부숙회 고구마보리 미역줄기볶음 봄동겉절이	적두밥 청국장찌개 안동멸탕 아채튀김 참나물생채 배추김치	
	일품 11:30~13:30 2,200원	꼬치어묵우동 김가루주먹밥 오징어아채초무침 깍두기	쌀밥/짜장소스 계란부추국 춘권/칠리소스 석박지	해물볶음밥 근대된장국 떡볶이 배추김치	아채비빔밥 미역미소국 파전 깍두기/요구르트	잡채찌덮밥 콩나물맑은국 핑거튀레/머스터드 아채샐러드/배추김	
	저녁 17:00~18:30 3,000원	기장밥 쇠고기무국 제육볶음 연두부/달래양념장 해호박새우젓볶음 배추김치	쑥쌀밥 닭제장 삼치무조림 버섯어묵볶음 쭈마늘래초무침 깍두기	현미밥 삼색수제비국 탕수육/후르츠소스 두부조림 새송이부추무침 배추김치	보리밥 배추된장국 소불고기당면볶음 함감자조림 미나리무침 알타리김치	쌀밥 김치콩나물국 일연수구이/와사비장 비트볼파자조림 치커리사과무침 깍두기	

2캠 주간식단표

		조식(백반)	중식(백반)	석식(백반)	뚝배기	특식/양식
이학생식당	월 5	콩나물국 계란어묵조림 도토리묵무침	돈육김치국 떡잡채 무말랭이	아욱된장국 소세지전 해초무침		오징어덮밥 미역국 소세지전 *순살돈까스
	화 6	계란국 꽁치무조림 유채나물	미소국 순대볶음 삼색초무침	감자다시마국 쭈꾸미볶음 근대된장무침		김치볶음밥 미소국 단무지/감자튀김 *순살돈까스
	수 7	고추장국 햄감자채볶음 연근조림	미역국 제육볶음 콩나물무침	만두국 김치전 열무된장무침		카레라이스 고추장국 김치전/깍두기 *순살돈까스
	목 8	북어무국 두부조림 숙주맛살무침/김	얼큰어무국 만두탕수 쥐어채무침	통배추국 고등어무조림 오이지무침	짬뽕탕 탕수육	해물볶음밥 얼큰어묵국 만두튀김 *순살돈까스
	금 9	호박국 동그랑땡전 미역줄기볶음	된장국 삼치튀김 오이지	소고기두부국 어묵볶음 쫄면무침	설렁탕 동그랑땡전 고추지무침	제육덮밥 된장국 샐러드/김치 *순살돈까스
	토 10	된장국 계란말이 콩나물무침	수제비국 연두부/양념장 마늘쫑지	얼큰무국 생선가스 오이도라지생채		
	일 11	김치국 갈치구이 우거지볶음	무채국 오징어볶음 상추겉절이	쑥갓어묵국 후라이 청포묵김가루무침		